

現代의 思惟와 人間 理念

人間 解釋의 現實 形態(2)

金基錫

生成의 論理는 본대 現實의 論理이었다. 現實을 그 具體性 그 根源性에 있어서 解明해야 한다. 그런데 이 現實이란 무엇인가. 現實이란 時間性的의 世界를 意味한다. 現實이란 限定性的의 世界를 意味한다. 움직이지 않는 現實 자기 혼자만 있는 現實이란 것이 있는가. 이리므로 現實이란 워낙 運動을 지녀야 하고 聯關을 가져야 한다. 眞實한 生成의 論理는 어디까지 던지 一切의 存在, 一切의 事實을 이 運動性, 聯關性에 있어서 理解把握, 闡明하지 안해서는 안된다.

오늘의 辯證法은 이 運動을 단순한 發展으로 이 聯關을 단순한 對立으로 줄여놓았다. 이리하여 한정 업시 넓고 아득한 現在의 世界를 구차스러운 辯證法的 世界로 번역하여 마치기에 바빠한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現代의 思惟의 現實形態와 아울러 生成의 論理의 『헤-겔』의 顛落을 읽는다. 現代의 思惟는 분명히 이 生成의 論理에 있어서 자기를 뚜렷하게 구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개 根本現實로서의 生成에 대한 깊은 省察에 드러서지 못하고 한갓 거친 論理, 그릇된 辯說에 떨어지는데서 도리어 思惟 그 自體 哲學 그 自體를 喪失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哲學은 자기를 實在의 學으로 부른다. 哲學은 實在의 世界를 그 具體性에 있어서 理解하고 說明해야 한다. 實在에 대한 根源的 思惟. 여기에서 哲學은 자기를 原理의 學, 根柢의學으로 發見 또 主張하기에 이른다. 사람들은 이 實在란 것을 생각해 온지 오래다. 어떤 이들은 『하나』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여럿』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精神, 어떤 이들은 物質이라고 하고. 哲學史의 우에서 그 多彩한 論戰을 버리는 여러 갈래의 流波는 진실로 이 實在의 思惟에 대한 態度의 逕庭에서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觀念論은 實在를 어디까지던지 그 存在性에 있어서 反省하려고 한다. 實在는 본대 存在의 體系를 보여야 한다. 眞實한 實在는 流動과 轉變의 뒤에 오는 어떤 久遠한 『이데아』의 世界가 되어야한다. 이리케 하여 觀念論은 자기

를 한 개의 理念主義, 形相主義로 限定한다.

우리들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代表되는 希臘哲學에 있어서 이 理念主義로서의 觀念論의 가장 빛나는 建設에 맞는다. 이미 眞實한 實在으로서 理性또는 精神을 내여 세웠으며, 自然이나 物質 가튼 것을 처음부터 단순한 假像으로 보아 거기에 대한 기쁜 省察에 드러서지 못한 것은 觀念論本來의 立場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업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처음에 存在의 論理로서 出發한 이 觀念論이 어떻게 되어 가튼 存在로서의 自然 또는 物質을 버리고 오히려 일른 存在로 規定하기 힘드는 理性이나 精神 가튼 것을 가장 眞實한 存在로 내여 세우게 되었을가. 그것은 觀念論이 자기를 支配하는 世界觀的 範疇로서 目的論을 당기고 잇기 때문이다.

觀念論은 實在 및 그 세계에 대한 思惟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 目的論의 態度를 지닌다. 希臘哲學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中世의 神學的 思辯을 거쳐 獨逸의 理性主義에 이 目的論的 世界解釋을 固執하고 잇는가를 보라. 그러나 아무리 目的論을 사랑하는 觀念論이라고 해도 自然의 原理 物質의 原理를 目的論에 드러마추는 재주는 없었다. 이때 觀念論이 取할 수 잇는 길은 이 自然이나 物質을 實在의 世界로부터 放逐하는 일이다. 이리하여 가장 目的論에 맞는 것을 차준 것이 理性이요, 精神이요, 主觀이요, 觀想이였다. 觀念論이 自然論, 唯物論에 대하여 기피 反對하면서 자기를 理性主義, 精神主義, 主觀主義, 觀想主義로 限定 또 主張하는 根柢가 진실로 여기에서 構成된다.

現實主義는 實在를 어디까지 그 運動性에 있어서 理解하기를 가르친다. 實在는 본대 運動의 體系를 보여야한다. 眞實한 實在는 生成을 너머서는 超越的인 彼岸에서가 아니고 時間속에서 버러지는 現實的 運動에 있어서 把握 規定 되어야 한다. 이러케 하여 現實主義는 자기를 한 개의 生成의 論理, 運動의 論理로 主張한다. 우리들은 存在가 본대 運動的 存在임을 안다. 存在는 久遠한 流動, 久遠한 轉變 속에서 자기를 찾고 일혀야 한다. 세계에는 워낙 存在가 잇는 것이 아니고 運動이 있다. 運動이 存在를 通하여 자기를 무단히 展開시킨다. 아하 運動에 있어서의 世界의 表現 이 運動이 낫날 때 運動과 함께 世界가 낫난다. 運動이 世界 속에서 이러나는 것이 아니라 世界가 낫한 개의 運動이 된다. 그런데 存在는 어떻게 되야서 이 運動이란 것을 지니고 世界는 어떻게 되야서 그자 신 한 개의 運動으로 나타나고 잇는가. 이것은 存在 및 그 世界가 본대 時間性에 있어서 成立 또 發見되기 때문이다. 現實主義는 玄室을 어디까지던지 이 時間性에 있어서 省察하기에 힘쓰고 또 그러케 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根本的 立場을 形成, 持續하기에 이른다.

現實主義는 진실로 한 개의 時間의 論理에 지나지 안는다. 이 時間이 곧

一切의 生成, 一切의 運動을 불러 이르는 根源이요. 地盤이 된다. 그러나 觀念論이 본대 存在의 論理이면서 目的論을 당긴데 反하여 現實主義는 워낙 生成의 論理이면서 한 개의 世界觀的 範疇로서의 因果論에 못잡힌다. 이리하여 觀念論과 現實主義는 한가지로 實在에 대한 思惟에서 出發하여 하나는 자기를 理性主義로 하나는 자기를 自然主義로 頽落시키고 말었다.